DOI:10.16979/jmak..75.202202.305

일본의 스포츠사회학에 관한 이론적 고찰*

오현석**
ohyuns@hanmail.net

<目次>

1. 들어가는 말
2. 스포츠와 사회학 이론
3. 문화로서의 스포츠
4. 문화로서의 스포츠에 대한 분석현황
5. 나가며

主題語: 일본(Japan), 스포츠사회학(sports sociology), 스포츠(sports),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문화(culture)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향유해 나간다. 그중에서도 스포츠는 두 가지 형태로 향유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여 스포츠를 즐기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미디어를 통해서 즐기는 형태가 존재한다. 일찍이 노베르트 에리아스(Norbert Elias)는 스포츠를 문명의 진행과정과 함께 병행되어 발달해 온 점을 강조하였다.[1] 즉 그는 근대국가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문명화가 진행되고, 물리적인 폭력행위가 스포츠와 같은 대체물을 통해 표출되게 되고, 그러한 영향 하에 근대적 스포츠가 등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접촉도가 높은 문화의 하나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사회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어 왔다. 특히 일본사회에서는 근대화 초기, 메이지유신 때부터 스포츠를 통한 국민국가 구축의 장치로써 활발하게 작동해 왔다는 역사적 경험을 안고 있다. 또한 패전 이후 일본사회에서 스포츠는 일본국민에게 문화적 장치의 하나로써 끊임없이 내셔널리즘을 구축해 온 부분도 부정할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일본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본사회에서 스포츠사회학을 중심으로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전후 일본사회의

* 이 연구는 2022년도 서울신학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서울신학대학교 일본어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1) ノベルト・エリアス、エリック・ダニング(1995)『スポーツと文明化 興奮の探求』法政大学出版局、p.28

스포츠사회학에서는 일본의 스포츠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물을 생산해 내왔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라고 하는 여가 활용의 수단이 문화적 활동으로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이러한 일본의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여, 일본사회에서 스포츠사회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검토해 본다. 특히 문화로서의 스포츠가 사회학 이론을 배경으로 어떠한 형태로 분석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스포츠와 사회학 이론

여기서 스포츠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함의를 생각해 보자.

일본사회에서 스포츠와 내셔널리즘의 관계에 관해 분석을 시도한 다키 코우지(多木浩二)에 의하면 스포츠(sports)라고 하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여가의 이용을 의미한다고 말한다.[2]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가 갖는 구체적인 사회적 함의를 살펴보면, 여가 이용을 통한 제도화된 경쟁적 활동이고, 활발한 신체적 노력 또는 개인에 의한 비교적 복잡한 신체적 기술의 사용을 포함하며, 거기에 참가하는 것은 활동 그 자체에 의한 내적 만족과 참가로 얻어지는 외부적 보수라고 하는 양자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3]

일본사회에서 이와 같은 스포츠의 사회적 의미는 사회학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물을 생산해 왔다. 일본사회의 스포츠 사회학에 대한 이론적 흐름은 크게 4 가지 사회학적 이론에서 출발하여 스포츠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가지 사회학적 이론은 구조기능주의, 투쟁(갈등)이론, 상징적 상호작용, 교환이론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러한 이론들에 대해 간단한 개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스포츠사회학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전개된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에 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구조기능주의의 이론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탈코트 파슨즈(Talcott Parsons)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회구조의 분석에 있어서 변수간의 균형에 의해 광범위한 사회를 설명하는 일반적 균형이론은 변수의 성질의 미확정 등으로 인해 사회학 영역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잠정적인 분석을 위해 각각의 변수를 변화하기 쉽거나 변화하기 어려운 것은 상대적으로 분리하거나 존속시키는 조작적 정의를 통해 사회구

2) 多木浩二(2009)『スポーツを考える-身体・資本・ナショナリズム』ちくま新書、p.8
3) Jay J. コークリー(1982)『現代のスポーツその神話と現実』道和書院、p.13

조를 설명하고자 하였다.[4] 이러한 그의 이론 체계는 사회구조에 있어서 행위체계 안에서 동태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한 구상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구조기능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구조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체계의 각각의 구성요소 중에서 불변적인 요소를 구조로서 확정하는 구조분석과 그 구조와 가변적 요소를 관련짓는 기능분석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된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법의 중심적 과제(체계의 유지조건의 특정화)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AGIL도식이라고 불리는 기능요건이론이다.[5] 이 도식에서 A(적응)는 외부환경에 적응해 가기 위해,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는 자원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G(목표달성)는 기능분화 속에서 해당 시스템이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의 목표를 A부문이 준비한 자원을 이용하여 실현한다는 것이다, I(통합)는 시스템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해 대립을 조정하고, 일어나게 될 일탈행동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L(잠재적 패턴유지)은 새로운 구성원을 사회화하고, 기존의 구성원들의 가치를 4가지의 기능전개의 국면을 이용하여 사회체계의 균형, 유지를 설명하는 도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기능주의이론은 변동하는 사회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스포츠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사회제도로서의 스포츠 분석을 위한 유용한 이론적 근거로도 고려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투쟁(갈등)이론은 구조기능주의가 안정된 균형 상태를 전제로 한 것에 반해,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이론에서 출발하여 사회의 투쟁·불안정·변동·지배 등을 전제로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투쟁이란 경쟁과 같은 상황 하에서 경쟁과 마찬가지로 상호 간에 상대보다도 목표달성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행위이지만, 경쟁과는 다르게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상대를 공격하거나, 상대의 존재 자체를 목표달성과정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상호행위 또는 사회관계를 의미한다.[6]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 투쟁(갈등)이론에 있어서는 변동이 모든 사회의 잠재적 상태이고, 투쟁도 또한 사회에 편재되어 변동을 촉진하는 창조적·역사적인 요인으로 간주한다.[7] 투쟁(갈등)이론은 여러 가지 모순점을 안고 있는 이론이기도 하지만, 구조기능주의의 균형적·통합적인 모델에 대항하여, 사회학의 현실성을 부각하고, 투쟁과 변동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회이론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높이 평가된다. 이와 같은 투쟁(갈등)이론은 스포츠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경쟁관계라고 하는 특성상, 그것을 중심적으로 조직된 제도라고 하는 특성에 기초하여 스포츠 현상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물론 스포츠의 대중화와 고도화의 모순 등의 거시적인 갈등 분석까지, 투쟁(갈등)이

4) 富永健一(2000)『社会学原理』岩波書店, pp.192-195
5) 富永健一(2000), pp.197-198
6) 富永健一(2000), p.149
7) J.H. 터너(1997)『사회학이론의 구조』한길사, pp.147-150

론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평가받는다.[8]

세 번째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이 이론의 관점은 인간과 타인과의 상징적 상호작용과정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서 인간의 해석과정을 통하여 주체성이 형성된다는 부분에 주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적 인간의 모습과 그 인간에 의해 형성된 과정적 동적인 사회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9] 이러한 이론은 미드(George Herbert Mead)에 의해 보다 실증적인 논의가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아의 생성과정에 있어서 '타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타자와의 태도 취득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고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대의 입장으로부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나'라고 하는 자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미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분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를 형성해 가는 프로세스를 도출해 낸다.[10]

네 번째로 교환이론이다. 교환이론이란 조지 호만스(George C. Homans)가 주장한 이론으로서 사회를 유무형의 재화가 교환에 의해 형성된다고 간주하고, 행위자가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행동과 그에 따른 보상을 분석해 나가는 이론이다. 즉 교환이론은 행위자를 보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불균형과 잠재적인 갈등이 가득 차 있는 복합적 교환구조로 조직화되는 의사결정자로 파악함으로써, 모두에게 조금씩 무엇인가를 주고 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교환이론은 행동주의자에게는 세계가 보강의 원리에 의거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을 강조하며, 경제학자들에게는 인간행위와 조직을 효용, 또는 가치의 교환으로 보는 견해를 제시한다.[11] 이러한 교환이론에 관해서 다타노 히데오(多々納秀雄)는 스포츠 소집단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하고, 스포츠를 둘러싼 상호작용 또는 제도화의 과정의 분석 등을 비롯하여 교환이론의 적용은 스포츠사회학에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12]

마지막으로 문화연구에 관해 살펴보자.[13] 일본에서의 문화연구는 영국의 문화연구를 토대로 전개된 학문적 성과를 의미한다. 영국의 문화연구가 일본에 도입된 배경에는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14] 문화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일상생활을

8) 多々納秀雄(1997)『スポーツ社会学の理論と調査』不昧堂出版, p.53
9) ハーバート・ブルーマー(1999)『シンボリック相互作用論 パースペクティヴと方法』勁草書房, pp.26-27
10) 阿部潔(2003)『彷徨えるナショナリズム オリエンタリズム/ジャパン/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世界思想社, p.67
11) J.H. 터너(1997), p.308
12) 多々納秀雄(1997), p.55
13) 본고에서 문화연구를 스포츠 사회학의 이론적 근거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사회에서 스포츠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문화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은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영위하는 일상생활이나 생활세계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다. 어떤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문맥, 특정한 사건과 장소 등에서 실천적인 분석, 해석을 실행하고,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는 데, 문화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학문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15] 이와 같은 문화연구의 기본적 지향점은 다양한 학문의 학제적인 고찰을 시도하게 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16] 일본에서의 문화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스포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고,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생산해 내왔다.

3. 문화로서의 스포츠

여기서는 다타노가 주장한 스포츠를 문화의 하나로서 간주하고, 분석한 이론에 관해 검토해 보겠다. 그는 스포츠사회학에 있어서 문화적 관점에서의 분석을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17] 첫 번째는 스포츠를 사회적·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싶다고 하는 일정한 가치에 기초하여, 문화로서 스포츠를 인정하자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현대 스포츠가 단순히 개인적·고립적 현상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대상론적·방법론적 관점에서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간주하자는 입장이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문화이론에 기초하여, 경험과학적 지향성을 갖고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규정해 가는 입장이다.[18]

먼저 첫 번째 관점부터 살펴보면, 문화와 스포츠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스포츠를 자기목적성, 미의 창조, 정서적 만족을 희구하는 것으로서 스포츠가 문화와 모순되는 부분

14) 오현석(2015)「일본의 문화연구에 관한 일고찰-미디어연구를 중심으로-」『일본학』동국대일본학연구소, p.216
15) 上野俊哉·毛利嘉孝(2000)『カルチュラル·スタディーズ入門』ちくま新書、p.7
16) 기쿠 고우이치(菊幸一)는 문화연구가 과거 사회학이 전통적으로 취급해 온 '형식사회학' 대 '문화사회학'에 있어서 '사회와 문화'라고 하는 구도에서 문화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며, 종래의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전제로 한 전체로서의 문화시스템을 문제화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마르크스주의적인 토대-상부구조에서 문화의 권력작용(구조)을 문제화하고 있는 것도 아님을 강조한다. 즉 문화연구 자체가 기존의 이론적 접근을 포함하며, 그러한 부분들을 대신하는 선택지로써의 '대안적인'이론적 접근의 전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나아가 문화현상에 있어서의 헤게모니, 전략, 해석과정의 다층적, 중층적인 정치성(권력성)을 기존의 이론적 접근을 비판해 나가면서 해석해 나가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한다. (菊幸一, 1999, p.310)
17) 多々納秀雄(1997), p.66
18) 多々納秀雄(1997), p.66

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의 한 종류로 간주한다는 관점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은 스포츠의 본질이 문화의 근원에 존재하며, 이로 인해 스포츠가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고유의 영역과 소산을 갖는 문화이며, 동시에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한다.[19]

두 번째 관점은 문화로서의 스포츠가 일종의 사회현상으로서 간주하고, 방법론적으로는 현상이해를 위한 사회적·역사적 요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은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이나 영향이 사회문제화 및 그 사회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각각 강조될 때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 노동, 문화'라고 하는 주제에서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강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20] [21]

세 번째 관점은 문화인류학과 같은 학문적 분야에서 다루는 일종의 문화론에 기초하여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개념정의하거나 구성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아직까지 스포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특히 관계물의 총체로서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규정할 경우, 행동이나 사회, 문물 등의 의미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논의가 전개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러한 견해는 각각의 요소가 단순히 열거되는 수준에서 머무르게 되고, 이로 인해 스포츠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연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시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즉, 문화라고 하는 다양한 개념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더라도 문화와 행동을 구분하고, 거기서 스포츠가 문화라고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스포츠가 사회적·문화적 체계의 표현체로서 활발한 상호행위라고 하는 다소 모순된 정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22]

다타노는 이러한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분석하는 세 가지 관점이 논증의 모순을 포함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스포츠 사회학의 이론적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문화연구에서는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배질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며 지배구조의 재생산, 저항성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해 왔다. 즉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분석해 나감에 있어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실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시도한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요시미 슌야(吉見俊哉)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문화연구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물을 생산해

19) 多々納秀雄(1997), p.67
20) 多々納秀雄(1997), p.67
21)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면 존 하그리브스(John hargreaves)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영국의 스포츠 역사를 기술해 나가면서 그람시의 헤게모니에 근거하여 계급에 의한 지도성의 달성과 '스포츠-권력'관계에 있어서 스포츠가 하나의 문화구성체로써 가장 잘 범주화되어 있는 점, 문화적 제요소는 권력망의 절대불가결한 구성요소인 점 등을 명확하게 논증하였다.(ジョーン ハーグリーヴズ, 1993, pp.13-15)
22) 多々納秀雄(1997), p.68

온 학자인데, 기본적으로 일본의 스포츠가 갖는 기능을 내셔널리즘의 고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문화로서의 스포츠가 함의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고 할 수 있다.[23)]

그렇다면, 일본사회에서 문화로서의 스포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석을 이끌어 내었는지에 관해 사례별로 고찰해 보자.

4. 문화로서의 스포츠에 대한 분석현황

여기서는 일본사회에서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어떠한 형태로 분석해 왔는지에 관해 고찰해 보자. 특히 문화연구의 이론을 바탕으로 스포츠를 이데올로기로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전술한 요시미의 연구 중에서, 메이지시기에 학교행사로 자리하게 된 운동회에 관한 분석을 살펴보자.[24)] 요시미는 메이지시대의 학교 행사 중, 운동회라고 하는 축제문화를 통해 개인을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하는 이념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아동 한 사람의 신체를 일본이 국민국가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 '주체=신하'라고 하는 신체화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운동회라고 강조한다. 그는 당시 메이지유신을 통해 일본을 개혁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초대 문부대신에 취임한 모리 아리노리(森有礼)가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운동회를 실시하고자 하였는지를 논증하였다.[25)] 당시 모리의 구상은 메이지유신이라고 하는 정치적 변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변혁, 인간의 의식이나 기질, 체격 등을 포함하여, 그것을 근본적인 부분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이 과제였다. 이러한 구상의 결과로써 '소학교 축일 대축제 의식 규정'을 고안해 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신체를 강화시키는 운동회라고 하는 신체적 단련 행사를 통해 국민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재생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26)] 요시미의 연구는 메이지유신을 통한 근대국민국가 구축을 도모한 일본사회에서 운동회라고 하는 문화적 요인을 통해 미시적인 권력의 작동과정을 명확하게 분석하였다고 이해된다.

그렇다면, 일본사회에서 문화로서의 스포츠를 통해 어떠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23) 吉見俊哉(1999)「ナショナリズムとスポーツ」『スポーツ文化を学ぶ人のために』世界思想社, p.41
24) 吉見俊哉(1994)「運動会の思想―明治日本と祝祭文化」『思想』845号, 岩波書店, p.137
25) 吉見俊哉(1994), pp.142-148
26) 吉見俊哉(1994), pp.149-151

할 수 있을 까? 우선 일본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야구에 관해서 살펴보자.

전술한 요시미의 분석에도 알 수 있듯이, 일본사회에서 스포츠를 통해 개인을 집단화하고, 나아가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을 강조하는 기능은 전후 일본사회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일본의 야구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시미즈 사토시(清水諭)의 고시엔(甲子園)야구가 있다. 그는 전국고교 야구 대회인 고시엔야구가 일본사회에서 어떠한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한 이를 통해서 일본인들에게 어떠한 신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롤랑 바르트의 기호론을 바탕으로 하는 신화작용 이론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27] 시미즈는 고시엔야구대회에 관한 다양한 담론을 기호론의 방법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고등학교 야구가 일종의 신화로서 작동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게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고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신화는 역사적 단계를 통해 재생산되어 나가고, 텔레비전 중계 등을 통해서 '고향에 대한 분위기 고조', '전원일치', '우정' 등의 담론을 생산해 내면서, 자신의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기능까지 행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그의 분석은 전국 단위의 고교 야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형성을 이루게 되고, 이를 통해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문화적 장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한다.[28] 이러한 연구 결과와 유사한 관점을 제시한 다나카 레이코(田中励子)는 고시엔야구대회 관련 담론 분석을 통해 향토 아이덴티티 구축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논증해 내었다.[29] 그녀는 향토 아이덴티티가 지연적, 혈연적 공유의식에서 발생하는 것에 주목하여, 고시엔야구대회도 향토 아이덴티티를 표면화시키고, 야구 시합을 통해 승패에 집중하면서 즐겨 나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즉 고시엔야구대회는 향토를 중심으로 과거의 연결고리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동시에 현재의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시켜 나가는 기능을 수행한다.[30] 예를 들어, 자신의 고향의 고등학교가 고시엔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모교를 응원해 나가면서 또 다른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재생산해 나가며, 이러한 과정이 단순한 애교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행위로까지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고등학교가 고시엔에 출전하게 되면 기부금 등의 행위로 이어지거나, 출전한 해의 고교 입시에는 지원자가 급증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다나카(田中励子)는 이러한 과정이 고시엔야구를 통해 향토 아이덴티티의 강화시키는 문화장치로써 작동하고, 이러한

27) 清水諭(1998)『甲子園野球のアルケオロジー　スポーツの「物語」・メディア・身体文化』新評論, pp.4-5
28) 清水諭(1998), pp.48-51
29) 田中励子(1999)「甲子園と郷土アイデンティティ」『高校野球の社会学』世界思想社, p.184
30) 田中励子(1999), p.189

이유에서 야구가 일본의 스포츠 문화 중에서 다른 스포츠와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31]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일본의 고교야구는 지역아이덴티티를 강화해 나가고, 나아가 국가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고양시켜 나가는 일종의 문화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요시미는 이러한 일본의 스포츠의 기능을 내셔널리즘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32] [33]

그렇다면 일본사회에서 야구 이외에 인기 스포츠로 자리하고 있는 축구의 경우는 어떠한 문화적 기능을 행하고 있을까? 우선적으로 1993년 프로화가 진행된 J리그 관련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자. 나카지마 노부히로(中島信博)에 의하면, 축구 J리그의 성공은 출범 초기부터 '지역밀착'과 '지역진흥'을 전략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말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당시 일본사회에서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었다. 하나는 기존의 스포츠가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다보니, 지방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발휘하여 탈중앙적인 성격의 스포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공공투자의 배분에 관해 새로운 시도가 행해질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34] 이러한 J리그의 성격은 지역밀착형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지역중심의 축구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다카하시 요시오(高橋義雄)는 이러한 J리그의 성격이 고시엔야구와 마찬가지로 향토 아이덴티티(향토애)와의 연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한다.[35]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의 축구는 단순히 지역 아이덴티티의 고양으로 머무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일까? 아리모토 다케시(有元健)는 이러한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아리모토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오이타현에서 발생한 로컬리즘에 기반한 축구소비현상을 분석했다. 그는 당시 오이타현이라고 하는 지방소도시에서 세계 각국에 축구를 매개로 한 정보발신 현상에 주목한다. 즉 월드컵을 통한 국제화 현상과 오이타현 중심의 축구 관련 정보발신이라고 하는 이항대립적인 현상을 분석하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국민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중앙과 주변'이라고 하는 명확한 분화가 발생, 이를 통해서 오이타현의 지역사회가 축구 월드컵을 통해 활성화 되어 가는 과정을 논증하였다. 즉 월드컵이라고 하는 전세계적인 이벤트를 통해, 오이타현의 로컬리즘이 단순히 토착주의적인 지역 아이덴티티가 아닌 또 다른 대안적인 로컬리즘의 발생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태동하는 저항성에 주목한다.[36] 나아가 그는 축구를 즐기는 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타자를 동일화시키는지에

31) 田中励子(1999), p.191
32) 吉見俊哉(1999), p.41
33) 문화인류학자인 이마후쿠 류우타(今福龍太)도 전후 일본사회에서 스포츠는 내셔널리즘과 연동해 가면서 끊임없이 국가나 국민의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이용되었다고 비판한다.(今福龍太, 1997, p.147)
34) 中島信博(1998)「地域社会からみたJリーグ」『変容する現代社会とスポーツ』世界思想社, p.151
35) 高橋義雄(1994)『サッカーの社会学』NHKブックス, p.43

관해서 고찰하였다. 아리모토는 영국의 문화연구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분석을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영국의 축구에서도 백인 팬들이 흑인 팬들로부터 전달되는 것이 남성성(남자다움)의 이미지이고, 이를 통해서 '위험하고 폭력적', '강도'등의 부정적인 편견이 '강인', '터프'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환되는 점에 주목한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흑인남성은 백인 팬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인 동일화의 과정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백인/흑인이라고 하는 이항적인 대립 구조에서 남성성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통해 또 다른 맥락의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37] 아리모토는 축구를 보는 행위가 타자와의 경계선을 긋는 기능이 작동되고, 이러한 과정이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의 구축에 연결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와 같은 근거에서 축구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존재로 이해될 때, 로컬 축구팀에 대한 경험을 하는 축구팬은 지역의 역사나 전통에 참여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집합적 아이덴티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우리들'이 같은 지역 안에서 생활하고, 나아가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는 집합성이 발생된다는 것이다.[38] 이와 같은 축구의 속성은 일본축구에서도 재현되는 데, 아리모토는 일본 축구가 국가대표 시합 등을 통해 특정한 담론을 전달하여 내셔널리즘의 고양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39] 그는 현대일본사회가 트랜스내셔널적인 상황 속에서 이동이나 공동체의 유동화, 다양성 등이 진행되지만, 반복적인 일본국가에 관한 표상이 축구를 통해 전달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일본의 축구 국가대표 관련 담론이 특정 스타일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동질화가 형성되어 내셔널리즘의 구축으로 작동한다고 비판한다.[40] 아리모토가 말하는 일본축구의 대표성을 갖는 표현이 '조직력'있는 일본 팀이라고 하는 담론의 생산이다. 그는 일본축구가 진정으로 조직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논의보다는 일본인은 '조직력' 축구가 특징이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을 전달해 나가면서, 하나의 일본이라고 하는 내셔널리즘의 재생산의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즉, 축구를 통한 특정 이데올로기의 작동이 일본사회에서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음을 지적한다.[41]

여기서 다시 요시미의 주장을 검토해 보자. 그는 일본사회에서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에서 시상대에 오르는 선수를 보면서 국가가 연주되고 부르는 행위, 응원석에서 일본 국기를 흔들

36) 有元健(2003)「ローカルなものの回復とコスモポリタンな経験」『W杯サッカーの熱狂と遺産 2002年日韓ワールドカップを巡って』世界思想社, pp.30-31
37) 有元健(2005)「サッカーの詩学と政治学」『サッカーの詩学と政治学』人文書院, pp.10-11
38) 有元健(2005), pp.21-22
39) 有元健(2020)「サッカー日本代表と「国民性」の接合」『日本代表論 スポーツのグローバル化とナショナルな身体』せりか書房, p.17
40) 有元健(2020), p.32
41) 有元健(2020), p.33

면서 응원하는 행위, 이러한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 자체가 내셔널리즘의 고양이라고 표현한다.[42] 특히, 이러한 스포츠이벤트 또는 스포츠 문화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될 때,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담론이 전달되고, 이러한 과정을 중층적으로 경험하는 국민들은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장으로써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한다.[43] 이러한 스포츠의 문화적 기능을 생각해 보면, 고시엔 야구나 축구 J리그와 같은 지역 밀착형 스포츠도 궁극적으로는 내셔널리즘이작동하는 이데올로기의 장치로써 이해되고, 결과적으로 스포츠를 통한 내셔널리즘의 구축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5. 나가며

본고는 일본사회에서 문화로서의 스포츠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는 스포츠사회학을 중심으로 스포츠가 어떠한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연구가 전개되었는지, 또한 문화로서의 스포츠가 어떠한 개념정의를 통해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지를 고찰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문화연구라고 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스포츠를 어떠한 방식으로 분석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본사회에서 스포츠에 대한 분석은 스포츠사회학의 분야에 한정하더라도 다양한 방법론에 근거하여 많은 연구결과물을 생산해 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문화연구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의 분석을 검토한 것은 일본의 문화연구가 스포츠를 분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여가 활용의 스포츠가 아닌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측면을 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요시미가 반복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스포츠를 통한 내셔널리즘의 구축, 문화장치의 하나로써 작동하는 스포츠가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일본의 스포츠사회학을 바탕으로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고찰 내용은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 리뷰 형태의 연구에서 머무르고 있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향후 본고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보다 확장적인 방법으로 이론화하여 실증적인 분석의 결과물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42) 吉見俊哉(1999), p.41
43) 吉見俊哉(1999), pp.54-55

【참고문헌】

J.H. 터너(1997)『사회학이론의 구조』한길사
오현석(2015)「일본의 문화연구에 관한 일고찰-미디어연구를 중심으로-」『일본학』동국대일본학연구소, p.216
Jay J. コ-クリー(1982)『現代のスポーツその神話と現実』道和書院, p.13
有元健(2003)「ローカルなものの回復とコスモポリタンな経験」『W杯サッカーの熱狂と遺産 2002年日韓ワールドカップを巡って』世界思想社, pp.30-31
_____(2005)「サッカーの詩学と政治学」『サッカーの詩学と政治学』人文書院.
_____(2020)「サッカー日本代表と「国民性」の接合」『日本代表論 スポーツのグローバル化とナショナルな身体』せりか書房
阿部潔(2003)『彷徨えるナショナリズム オリエンタリズム/ジャパン/グローバリゼ―ション』世界思想社, p.67
今福龍太(1997)『スポーツの汀』紀伊國屋書店, p.147
上野俊哉･毛利嘉孝(2000)『カルチュラル･スタディ―ズ入門』ちくま新書, p.7
菊幸一(1999)「理論的アプローチ―機能主義/マルクス主義/カルチュラル･スタディ―ズ/歴史主義」『スポーツ文化を学ぶ人のために』世界思想社, p.310
清水諭(1998)『甲子園野球のアルケオロジー スポーツの「物語」･メディア･身体文化』新評論.
ジョーンハーグリーヴズ(1993)『スポーツ･権力･文化―英国民衆スポーツの歴史社会学』不昧堂出版, pp.13-15
高橋義雄(1994)『サッカーの社会学』NHKブックス, p.43
多木浩二(2009)『スポーツを考える-身体･資本･ナショナリズム』ちくま新書, p.8
多々納秀雄(1997)『スポーツ社会学の理論と調査』不昧堂出版
田中励子(1999)「甲子園と郷土アイデンティティ」『高校野球の社会学』世界思想社
富永健一(2000)『社会学原理』岩波書店
中島信博(1998)「地域社会からみたJリーグ」『変容する現代社会とスポーツ』世界思想社, p.151
ノベルト･エリアス･エリック･ダニング(1995)『スポーツと文明化 興奮の探求』法政大学出版局, p.28
ハーバート･ブルーマー(1999)『シンボリック相互作用論 パースペクティヴと方法』勁草書房, pp.26-27
吉見俊哉(1994)「運動会の思想―明治日本と祝祭文化」『思想』845号, 岩波書店, p.137
_____(1999)「ナショナリズムとスポーツ」『スポーツ文化を学ぶ人のために』世界思想社.

논문투고일 : 2022년 01월 05일
심사개시일 : 2022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22년 02월 10일
2차 수정일 : 2022년 02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2년 02월 22일

〈要旨〉

일본의 스포츠사회학에 관한 이론적 고찰

오현석

본고는 일본사회에서 스포츠사회학을 중심으로 어떠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지를 검토해 본 것이다. 일본사회는 일상생활에서 스포츠가 하나의 문화로서의 기능을 명확하게 실행하고 있다. 전후 일본사회의 스포츠사회학에서는 일본의 스포츠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물을 생산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스포츠사회학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사회학의 이론을 대략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일본사회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문화연구에 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일본의 스포츠사회학은 문화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연구결과물을 생산해 왔다. 특히 본고에서는 문화로서의 스포츠가 어떠한 형태로 분석되어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스포츠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규명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스포츠사회학은 문화연구를 바탕으로 스포츠가 내셔널리즘의 구축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다양한 방식으로 도출해 내었다.

A Theoretical Study on the sports sociology in Japan

Oh, Hyun-Suk

This study examines what kind of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Japanese society with a focus on the sociology of sports. In Japanese society, the function of sports as a culture is clearly implemented in daily life. It can be said that the sociology of sports in postwar Japanese society has produced various research results on Japanese sports. In this study, the theory of sociology based on the sociology of sports in Japan was briefly reviewed. In addition, cultural studies, which have been actively researched in Japanese society since the 1990s, were reviewed. Sports sociology in Japan has produced various research results with cultural research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how sports as a culture have been analyzed. It can be seen that these studies were mainly intended to identify the ideological function of sports. And the sociology of sports in Japan, based on cultural studies, also derived research on how sports work in the construction of nationalism in various ways.